



‘U대회 성공 개최’ 한마음 12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단장(HoD·Head of Delegation) 사전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51개국 110명의 대표단장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랑이 대포 4방, 사자 잠재우다

김주찬 멀티홈런에 최용규·김다원 보태 9-7 승...5연패 끊어
김, 전날 멀티히트 등 타격감 최고...심동섭, 삼성 타선 공포



토타자로 돌아온 김주찬이 멀티 홈런으로 KIA의 연패를 끊었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3차전에서 4개의 홈런포를 앞세워 9-7 승리를 거뒀다. 부상에서 회복한 김주찬은 역전 홈런과 쉐키포를 터트리며 5연패의 팀을 구했다. 최용규와 김다원도 시즌 마수결이 홈런을 쏘아 올리며 삼성의 막강 마운드를 공략했다. 전날 최형우의 멀티 홈런에 올랐던 KIA가 2회 최용규의 홈런과 함께 먼저 공세에 나섰다. 2사에서 타석에 선 최용규는 삼성 선발 장원삼의 124km 제인지업을 잡아당겨 시즌 첫 홈런이자 통산 두 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지난 2009년 5월28일 SK 김광현을 상대로 한 홈런 이후 2145일 만에 가동된 홈런포이기도 했다. 3회 삼성이 박석민의 스리런으로 승부를 뒤집었지만 이번에는 김주찬의 한방이 있었다. 2-3으로 뒤진 5회 강한울의 우전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루에서 김주찬이 타석에 섰다. 김주찬은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장원삼의 슬라이더를 공략해 4-3으로 승부를 뒤집는 투런을 만들었다. KIA의 홈런 공세는 6회에도 이어졌다. 선두타자 이병호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다원이 장원삼의 직구를 때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며 점수를 6-3까지 벌렸다. 8-4로 앞선 9회 홈런쇼의 대미를 장식하는 김주찬의 한방이 다시 이어졌다. 선두타자로 나온 김주찬은 바뀐 투수 임현준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125m 밖으로 보내며 시즌 1·2호 홈런을 연달아 만들어냈다. 장만지 근육통으로 경기를 쉬어갔던 김주찬은 토타자 겸 좌익수로 돌아온 전날 멀티히트를 기록한데 이어 멀티홈런까지 날리면서 위기의 팀을 구해냈다. 마운드에서는 좌완 심동섭의 활약이 돋보였다. 6-3으로 앞선 6회 선발로 출격할 스티븐슨이 박석민의 3루타와 박석민의 2루타로 4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최형우의 타구가 유격수 글러브로 빨려들어가면서 아웃카운트가 하나 올라갔지만 이승엽의 타구가 1루수 필의 글러브를 맞고 뒤면서 1사 1·3루가 됐다.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오른 심동섭이 구자욱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급한 불을 끄었다. 대타 나바로를 고의사구로 내보낸 심동섭은 진감용을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면서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종료했다. 7회에도 2개의 탈삼진을 추가하는 등 삼자범퇴로 삼성 타선을 묶으며 승기를 가져왔다. 9회 마무리 윤석민이 박한이에게 3점포를 맞기는 했지만 한방 퍼레이드로 점수를 쌓은 타자들을 덕에 경기는 9-7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주찬

“어울림엔 장애 없어요” 광주장애인 보치아 어울림대회 성료



지난 11일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15 광주보치아 어울림대회’에서 한 선수가 공을 던지고 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장애인 보치아 어울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관한 ‘2015 광주시장애인 보치아 어울림대회’는 지난 11일 광주지역 3개 클럽 70여명의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 80여명 등 150여명이 참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보치아는 그리스의 공던지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링과 유사하다. 지난 1988년 서울패럴림픽을 시작으로 2012년 런던패럴림픽까지 7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효자종목이다. 규정은 뇌성마비 1·2등급의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해 경기를 펼

치는 것이지만, 중증이 아닌 뇌성마비 장애인과 노인들의 동계스포츠와 정신지체 놀이 프로그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 보치아는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국장애인체전 주력 종목으로 성장, 올해 체전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성동욱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 회장은 “그동안 훈련장이 없어 전전하던 광주 보치아 선수들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체육센터에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게 됐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진종오 ‘세계新’ 명종

사격 월드컵 10m 권총 206점
호양 슈안빈 기록 3.2점 당겨

진종오(36·KT)가 국제사격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김학만(상무·39)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진종오는 12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15 국제사격연맹(ISSF) 월드컵 국제사격대회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206.0점을 기록, 베트남의 호양 슈안빈이 지난해 3월 수립한 세계 기록(202.8점)을 경신했다. 2위는 미얀마의 나웅옌톤(201.0점), 3위는 인도의 라이 지투(181.0점)가 차지했다. 진종오는 이날 기록 수립으로 10m 공기권총 본선·결선, 50m 권총 본선·결선 등 4개 분야에서 세계 신기록을 동시에 보유하는 사격 역

사상 최초의 선수가 됐다. 진종오는 지난해 9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미 리우올림픽 출전권(쿼터)을 획득했다. ISSF는 선수 1명당 올림픽 쿼터 1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 수립은 올림픽 출전권과는 무관하다. 진종오는 이날 올레가리오 바스게스 라냐 ISSF 회장으로로부터 ‘2014년 올해의 선수’ 상을 받는 기쁨도 누렸다. 김학만(상무·39)은 이날 50m 소총 복사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리우올림픽 출전 쿼터를 따냈다. 김학만은 206.6점을 기록해 매튜 에몬스(미국·208.3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위는 그리멜 토빈(덴마크·186.4점)이 차지했다. 쿼터는 선수 개인이 아닌 국가에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종오, 김학만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하려면 내년엔 별도의 국내 선발전을 통과해야 한다. /연합뉴스